

대학생의 부정적 정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성별을 통한 폭발적 행동의 매개된 조절효과

Influence of Negative Emotion on the Suicidal Ideation in University Student: Mediated Moderating Effect of Explosive Behavior through Gender

정구철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Goo-Churl Jeong(gcjeong@syu.ac.kr)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부정적 정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을 통해 폭발적 행동이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 644명(남자 322명, 여자 322명)을 대상으로 우울, 불안, 폭발적 행동 및 자살생각을 조사하였고, 매개된 조절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과 경로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단순기울기검정 결과를 도식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부정적 정서, 폭발적 행동과 자살생각 간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부정적 정서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였다. 셋째, 부정적 정서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폭발적 행동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넷째, 폭발적 행동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부정적 정서와 폭발적 행동이 자살생각의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사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우울 | 불안 | 폭발적 행동 | 자살생각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ediated moderating effect of explosive behavior through gender between negative emotion and suicidal ideation. It was conducted to measure depression, anxiety, explosive behavior and suicidal ideation from 644(322 male, 322 female)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ed moderating effect was analyzed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And the results of simple slope test were presented graphically.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there were positive relationship among negative emotion, explosive behavior and suicidal ideation. Second, gender ha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within the relationship of negative emotion and suicidal ideation. Third, explosive behavior ha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within the relationship of negative emotion and suicidal ideation. Forth, gender ha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within the relationship of explosive behavior and suicidal ideation.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were explored in relation to the importance of negative emotion and explosive behavior that could be taken to improve suicidal ideation according to gender. In addition, this implication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ovided.

■ keyword : | Depression | Anxiety | Explosive Behavior | Suicidal Ideation |

* 본 연구는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접수일자 : 2014년 08월 27일

심사완료일 : 2014년 10월 28일

수정일자 : 2014년 10월 17일

교신저자 : 정구철, e-mail : gcjeong@sy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이제 충격적인 소식도 아니다. 201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9.1%가 자살충동이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고, 중고생의 자살충동 비율은 12.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1]. 이로 인해 자살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청소년들의 학업 및 대인관계와 관련된 자살 연구가 많고, 성인들의 경우 경제적 문제와 자살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소년보다 학업에 대한 강압도 상대적으로 적고 성인보다 경제적 부담도 적은 대학생들에 대한 자살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13세 이상 10대 청소년의 자살충동이 12.1%로 가장 높기는 하지만, 2번째로 높은 집단이 20대와 50대(모두 9.3%)였다. 또한 실제로 자살로 인해 사망한 번사자 통계를 분석해 보면, 중학교 재학생 중 자살자는 61명, 고등학교 재학생 중 자살자는 126명, 대학교 재학생 중 자살자는 176명으로 대학생들의 자살 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2].

자살은 자살생각에서 자살시도와 자살행위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사건으로 분석해야 하므로,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가 현실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3]. 자살시도는 오랜 심리적 갈등을 통해 형성된 자살생각을 거쳐 현실 문제에 대한 회피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자살생각은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5]. 대학생의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변인을 보고하고 있으나 주요 원인들을 요약해 보면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로 정리해 볼 수 있다[6-8]. 대학생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에 해당하므로 발달단계의 특성 상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가치관 및 자아정체감 확립과 같은 발달과업에 따른 스트레스들이 발생하고 있다[6]. 또한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학업문제, 이성 및 대인관계문제, 경제적 문제, 진로문제와 같은 다양한 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

고 있었다[7][8].

더욱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들의 고용불안이 장기화되면서 대학생들의 취업과 같은 경제적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활 중 성적 및 스펙(spec)을 갖추기 위한 경쟁도 심화되어, 대학생들의 학업적, 경제적 스트레스의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혜선 등[9]이 대학생 자살생각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에서 1위가 '자신에 대한 실망과 헤어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지금 대학생들이 처해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이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함을 시사한다.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는 우울 및 불안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10], 우울과 불안은 선행연구들에서 자살생각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어[11-15], 대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을 다루는 일은 자살을 감소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우울과 불안, 분노 등을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가 순간적인 충동으로 자기조절 능력을 잃고 공격적 행동을 갑자기 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폭발적 행동이라고 한다[16-19]. 이는 분노의 급작스런 표출을 의미하는 데, 자신의 분노를 욕설이나 폭력 등으로 표현하는 것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분노표출은 위협에 직면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대인관계나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20]. 특히 아동기에 나타나는 분노 폭발 행동은 청소년과 성인기의 정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21], 성인기의 분노표출 문제는 심혈관계 증상과 더불어 다양한 신체증상을 야기하기도 하고[22],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20]. 이러한 공격성은 우울 및 불안과도 상관관계가 높고[16], 분노와 충동성은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와도 관련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17][18]. 그렇다면 우울이나 불안이 가득한 대학생들이 기물을 부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같은 폭발적 행동을 하고 나면, 억제된 부정적 정서가 일시적으로 해소되어 자살생각이 감소할까? 폭발적 행동은 때때로 우리 사

회에서 가슴속의 응어리를 풀었다거나, 속이 후련해진다는 식으로 용인되기도 한다. 그러나 분노나 충동성, 공격적 행동은 일반적으로 자살행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우울이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나, 최근 국내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울과 충동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우울이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충동성을 통해 간접효과만 유의한 것으로 보고된 연구가 있다[24]. 또한 대학생들의 자살행위는 성인과 같은 인지적인 부분보다는 정서적인 부분의 영향이 더 크게 미쳐서 우울한 기분이나 충동적인 요인의 개입이 자살행위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25]. 이처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충동성과 공격성의 속성이 같이 발현되는 폭발적 행동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순옥과 김순남[26]이 대학생 295명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을 연구한 결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 국외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자살에 대해 더 허용적이고 자살 행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27][28], 자살생각에 대한 성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자살생각의 주요 원인인 우울의 영향을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하게 받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 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29][30], 대학생들의 부정적 정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울, 불안 및 충동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13]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성별에 따라 제시한 상관관계 행렬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충동성과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여학생의 경우 유의하게 나타나 충동성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역시 성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자살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성별 차이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든 경로에 있어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 연구들이 제시한

성별에 따라 자살생각과 부정적 정서, 폭발적 행동 간의 관계가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들을 고려해, 부정적 정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 부정적 정서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폭발적 행동의 매개효과와 성별을 통한 매개된 조절효과까지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부정적 정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을 통한 폭발적 행동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 정서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둘째, 부정적 정서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폭발적 행동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셋째, 폭발적 행동이 매개된 부정적 정서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내 교수학습개발센터와 학생생활상담센터에서 조사한 대학생 학습기술검사와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병합한 2차 자료를 분석하였다. 원자료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조사된 1,473부의 자료이며, 연구 목적에 필요한 변수의 문항만 선정하여 병합하였다. ID가 불일치하여 병합할 수 없는 자료와 불완전한 자료 등을 제외하고 남자 322부, 여자 328부의 총 648부의 자료가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 조절효과가 중요한 요인이므로 남녀의 비율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여자 자료에서 4부를 SPSS의 무작위 선택법에 의해 제거하고, 남녀 각 322부씩 총 644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평균 연령은 21.2세(SD=1.3)였으며, 19세에서 29세까지 분포하였다. 계열별 분포는 인문사회계열 247명(38.4%), 자연계열 280명

(43.5%), 예체능계열 117명(18.1%)이었다.

2. 연구 도구

2.1 부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는 박동혁[31]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울과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고 표준화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부정적 정서는 우울과 불안의 2개 요인을 합산하였으며, (주)한국가이던스로부터 표준 T점수로 변환된 점수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검사요강에 제시된 신뢰도는 대상에 따라 .88~.90이었다.

2.2 폭발적 행동

폭발적 행동 척도는 다면적인성검사(MMPP)의 소척도 중에서 폭발적 행동 소척도의 문항을 사용하였다[19]. 문항은 “너무 화가 나서 남을 때려 다치게 했다” 등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합척도의 범위는 5점~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폭발적 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8이었다.

2.3 자살생각

자살생각 척도(Scale for Suicidal Ideation)는 이재상[32]이 Beck, Kovacs 그리고 Weissmen[33]이 임상면접시 사용하는 자살생각 척도 문항들 중 지필형 검사로 수행하기에 적절한 4문항을 추출하여 변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살생각 척도는 “자살을 할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내 인생은 너무 형편없이 엉망이라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등의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합척도의 범위는 5점~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 척도의 내적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6이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된 통계분석은 IBM사의 SPSS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주요 연구 변수들의 백분율과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연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하였고, 매개된 조절효과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34].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Sobel test를 수행하였고, 조절효과에 대한 사후분석은 회귀계수의 집단 간 차이 검증을 경로분석을 통해 다집단 분석으로 검증한 후 도식을 제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성별에 따른 부정적 정서, 폭발적 행동 및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

우울과 불안으로 구성된 부정적 정서와 폭발적 행동 및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수와 각 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성별로 분할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남녀 모두 주요 연구변수인 부정적 정서, 폭발적 행동 및 자살생각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폭발적 행동 변수의 상관관계가 일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등 여성보다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1. 성별 부정적 정서와 폭발적 행동 및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행렬 (N=644)

변인	(1)	(1-1)	(1-2)	(2)	(3)	
(1)부정적 정서		.92***	.90***	.23***	.54***	
(1-1)우울	.91***		.65***	.25***	.60***	
(1-2)불안	.91***	.67***		.16**	.38***	
(2)폭발적 행동	.11*	.09	.12*		.44***	
(3)자살생각	.39***	.39***	.32***	.24***		
남	100.42	49.38	51.04	7.70	7.69	
M (n=322)	(18.17)	(9.96)	(9.96)	(2.36)	(2.93)	
(SD)	여	97.36	48.36	49.01	6.86	7.86
(n=322)	(17.69)	(10.07)	(9.39)	(1.95)	(2.80)	

주. 대각선 아래는 남자, 위는 여자의 상관관계 행렬임.

*p<.05, **p<.01, ***p<.001

2. 부정적 정서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을 통한 폭발적 행동의 매개된 조절효과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된 조절효과란 기본적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조절변수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상태에서, 매개변수가 추가되어 매개효과와 유의성을 검증한 후, 추가된 경로계수에 조절효과와 유의성을 확장하여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34]. 이를 위해 3단계의 검증 방법을 사용한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면서 조절변수와 상호작용항이 유의하여야 한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해야 한다. 이때, 2단계와 3단계에 투입된 상호작용항이 유의한지 파악하여 조절효과가 어느 경로계수에서 나타나는지 분석하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상태에서 폭발적 행동의 매개변수가 추가되어 매개효과와 유의성을 검증한 후, 각 경로계수에 성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는 단계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기 전에 성별을 여자는 -1, 남자는 1로 대비 코딩하였고, 성별과 연구 변수들의 상호작용항은 각 연구 변수를 평균을 기준으로 중심화(centering)한 후 성별과 곱하여 구성하였다.

부정적 정서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폭발적 행동과 성별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1단계에서 부정적 정서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 정서는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47, p<.001$), 성별의 조절효과도 유의하여($\beta=-.07, p<.05$), 매개된 조절효과와 기본 가정을 충족하였다. 또한 첫 번째 연구문제인 부정적 정서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2단계에서 부정적 정서가 매개변수인 폭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고($\beta=.16, p<.001$),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폭발적 행동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하게 나타나($\beta=.28, p<.001$), 폭발적 행동이 부정적 정서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였다. 부정적 정서가 폭발적 행동을 경유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Sobel test로 검증한 결과 유의하게 나타나

($Z=3.576, p<.001$), 두 번째 연구문제인 부정적 정서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폭발적 행동이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를 포함한 각 경로계수에서 성별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폭발적 행동과 자살생각 간의 경로계수에서만 유의한 성별 조절효과가 있었다 ($\beta=-.09, p<.05$). 1단계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던 부정적 정서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는 매개효과가 추가된 최종 모형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부정적 정서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폭발적 행동을 통해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여자의 경우 폭발적 행동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강하게 한다. 그러므로 세 번째 연구문제인 부정적 정서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을 통한 폭발적 행동의 매개된 조절효과는 폭발적 행동과 자살생각 간의 경로계수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모형 III의 설명량은 29.1%($R^2=.291, F=52.324, p<.001$)였으며, Durbin-Watson값은 2.09로 나타나 오차항의 독립성을 가정하였고,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로 확인한 결과 모두 1.05~1.17로 기준값 10에 미치지 못해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최종 분석 결과를 표준화된 회귀계수와 함께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유의한 경로계수는 실선으로 표현한 후 표준화 회귀계수 값을 표기하였고, 유의하지 않은 회귀계수는 점선으로 표현하였다.

표 2. 부정적 정서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을 통한 폭발적 행동의 매개된 조절효과 (N=644)

종속변수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VIF
	자살생각		폭발적 행동		자살생각		
독립변수	b	β	b	β	b	β	
부정적 정서	.07	.47***	.02	.16***	.07	.42***	1.08
성별	-.20	-.07*	.39	.18***	-.34	-.12**	1.05
부정적 정서x성별	-.01	-.07*	-.01	-.04	-.01	-.05	1.07
폭발적 행동					.37	.28***	1.17
폭발적 행동x성별					-.12	-.09*	1.13
R ²	.219		.063		.291		
F	59.724***		14.333***		52.324***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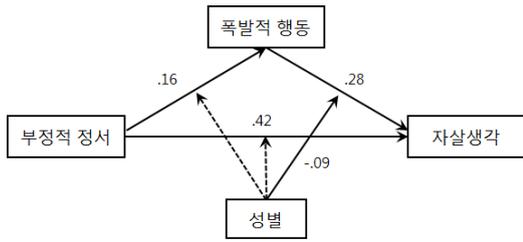


그림 1. 부정 정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을 통한 폭발적 행동의 매개된 조절효과 모형

성별의 조절효과가 폭발적 행동과 자살생각 간에 유의하다는 것은 회귀계수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에 성별에 따라 회귀방정식을 산출하여, 경로분석의 다집단 분석을 통해 폭발적 행동과 자살생각 간의 회귀계수가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으며[표 3], 분석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3.355, p<.001$).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명료하게 시각화하기 위해 각 집단별로 폭발적 행동의 ± 1 표준편차 값을 회귀방정식에 대입하여 회귀선을 도식으로 작성해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즉, 폭발적 행동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남자보다 여자의 경우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폭발적 행동과 자살생각 간의 경로계수에 대한 성별 차이 검증 결과 (N=644)

집단	B	SE	β	절편	R ²	t
남자	.30	.07	.24***	5.36	.059	
여자	.63	.07	.44***	3.52	.193	3.35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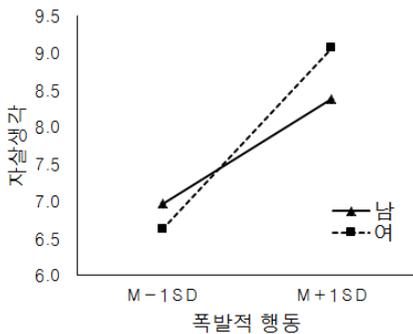


그림 2. 폭발적 행동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IV. 논의

부정적 정서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폭발적 행동과 성별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우울과 불안으로 구성된 부정적 정서는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며,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결과 여자가 남자보다 자살생각에 있어서 부정적 정서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일관되게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28][29]. 우울과 불안의 영향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되게 남성보다 여성의 우울 및 불안 장애 유병률이 약 1.5배 이상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35][36], 자살생각도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해보면[26] 부정적 정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우울과 불안 수준을 분석한 결과에서, 중학교 이후 우울과 불안이 여학생들이 높게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고학년으로 가면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아, 남학생들도 여학생들만큼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 준 연구도 있다[37]. 일반적으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부정적 정서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여성이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내의 입시환경,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감정표현 허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추후 성차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울 및 불안이 폭발적 행동을 통해 자살생각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폭발적 행동이 부정적 정서와 자살생각을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경로계수가 정적인 영향이 있어 부정적 정서는 폭발적 행동을 증가시키고, 폭발적 행동은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폭발적 행동은 우울 및 불안에 대한 해소사 아니라 자살생각을 더 가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

정적 정서에 대한 폭발적 행동은 적절한 스트레스의 해소 방법이 아니며,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 동일하게 폭발적 행동을 측정한 선행연구는 없지만, 분노, 폭력성, 충동성 등의 유사한 개념들은 모두 자살생각과 자살행위를 유의하게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연구결과라고 볼 수 있다 [17][23-25]. 폭발적 행동과 같은 공격성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원만한 대인관계의 형성에 어려움을 유발하고, 정서발달 및 사회부적응과도 관련이 있으므로[38], 조기에 적절한 충동 및 분노조절 훈련이 요구된다. 최근 20년간의 청소년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39], 분석에 사용된 19편의 논문이 모두 인지행동적 접근에 기반을 둔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문제 상황에 대한 자각과 이완 기술과 같은 감정에 대처하는 기술 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부정적 정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에 대해 빠르게 자각하고 부정적 정서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 훈련을 수행하는 인지행동 치료방법은 대학생들의 자살생각 감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폭발적 행동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는 성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남녀 모두 폭발적 행동이 자살생각을 증가시키지만, 여자의 경우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nnattaf[23]가 3,461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살행동과 관련된 위험 요인들을 성별에 따라 조사한 결과, 단계적 회귀분석에서 청소년들의 폭력성(violence)이 남녀 모두 첫 번째 변수로 투입되어 자살행동을 더욱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일부 지지하였다. 또한 동일한 연구에서 폭력성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집단을 나누어 회귀분석을 하였으며, 남녀 간 회귀계수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지는 않았으나 여자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23]. 본 연구에서도 폭발적 행동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유의하게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물건을 부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에게 암묵적으로 요구되는 성역할과 상충되고, 이러한 행동 후에 나타날 결과에 대해 여성들은 남성들보

다 상대적으로 더욱더 큰 부담을 경험할 것으로 생각된다. 부정적 정서가 심화되었을 때, 이를 공격적인 폭발적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은 화풀이를 통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살생각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여자의 경우 폭발적 행동을 수행한 후 더욱 더 자살생각이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울과 불안 같은 부정적 정서를 폭발적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은 적절한 스트레스 감소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부정적 정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조절효과가 초기 모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었으나, 폭발적 행동의 매개효과가 포함되고 추가된 경로의 성별 조절효과를 분석한 최종모형에서는 부정적 정서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변화되어 나타났다. 가정희와 안성희[24]는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에서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충동성을 통한 간접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면서 우울이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충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면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정적 정서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도 폭발적 행동이 매개변수로 투입되면서 부정적 정서가 폭발적 행동을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했으며, 이로 인해 부정적 정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감소되었다. 그러나 직접효과가 감소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나 우울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24]와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측정도구의 차이와 부정적 정서에 불안이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독립변수인 부정적 정서가 폭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우울이 분노억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만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우울이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모두 유의하게 정적으로 나타나[40], 우울이 분노표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폭발적 행동

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부정적 정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는 폭발적 행동이 매개변수로 통제될 경우 폭발적 행동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 차이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울이나 불안이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성별 차이를 고려한 치료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보다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대학생들이 부적절한 분노표출에 해당하는 폭발적 행동을 통제하는 치료 프로그램을 성차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가 2차 자료를 활용한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한 변수의 신뢰도는 매우 높은 반면, 일부 단체 조사를 위한 축약형 질문지를 사용한 변수들은 비교적 낮은 신뢰도를 보여 후속 연구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였으나, 성인들의 경우 가정이나 직장 등 다양한 장면에서 폭발적 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성인들에 대한 연구결과로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폭발적 행동의 측정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표준화된 다면적 인성검사 도구를 사용하기는 했으나, 이론적 배경에 의해 문항이 개발되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연구도구를 개발하여 다양한 하위요인을 고려한 폭발적 행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폭발적 행동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으며, 특히 성별에 따라 폭발적 행동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을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경로계수의 차이를 밝히고 자살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국가통계포털, 사회조사: 자살에 대한 충동 및 이

유(13세 이상 인구), 2012.

- [2] 국가통계포털, 경찰청범죄통계: 변사자 발생표, 2010.
- [3] 정구철, 신성례, “대학 신입생의 학문적 사회적 통합성과 자기회피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음주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제28권, 제5호, pp.105-116, 2011.
- [4] D. Harwood and R. Jacoby, “Suicide behavior among the elderly, In K. Hawton(Ed.),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John Wiley & Sons. Ltd.
- [5] M. S. Shin, K. B. Park, and K. J. Oh, “The Effect of Depression and Impulsivity on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Korean Journal Clinic Psychology, Vol.10, No.1, pp.286-297, 1991.
- [6] 한주리, 남궁은정,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의사소통의 양과 질에 따른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의 차이”, 아동학회지, 제29권, 제1호, pp.325-337, 2008.
- [7] 전경구, 김교현, 이준석,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5권, 제2호, pp.316-335, 2000.
- [8] 박영주, 오가실, 이숙자, 오경옥, 김희순, 최상순, 이성은, 정추자, 김정아, 전화연, “한국 대학생의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생활사건 및 건강행위”, 대한간호학회지, 제32권, 제6호, pp.792-802, 2002.
- [9] 이혜선, 김성연, 박일, 강여정, 이지영, 권정혜, “대학생의 자살관련생각과 행동의 원인 및 자살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4권, 제3호, pp.703-728, 2012.
- [10] 최승혜, 이해영,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신체증상, 우울, 불안,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2호, pp.808-816, 2013.
- [11] 김은주, 최경원, “대학생의 취업불안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가정간호학회지, 제19권, 제2호, pp.105-111, 2012.

- [12] 신복기, 이성진, “청소년의 가정폭력, 학교폭력, 우울불안, 자살 간의 관계 : 가정위탁, 양육시설, 쉼터,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제44권, pp.281-318, 2012.
- [13] 김갑숙, 전영숙, “청소년의 우울, 불안과 충동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1권, 제5호, pp.903-913, 2012.
- [14] A. Farabaugh, S. Bitran, M. Nyer, D. Holt, and P. Pedrelli,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Psychopathology*, Vol.45, No.4, pp.228-234, 2012.
- [15] G. Macaron, M. Fahed, D. Matar, R. Bou-khalil, and F. Kazour, “Anxiety,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Lebanese Patients Undergoing Hemodialysis,”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Vol.50, No.2, pp.235-238, 2014.
- [16] W. Hale, I. Vlk, J. Akse, and W. Meeus, “The interplay of early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aggression and perceived parental rejection: A four-year community study,”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Vol.37, pp.928-940, 2008.
- [17] D. Kerr, J. Washburn, A. Feingold, A. C. Kramer, A. Z. Ivey, and C. A. King, “Sequelae of Aggression in Acutely Suicidal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35, pp.817-830, 2007.
- [18] A. Osman, P. M. Gutierrez, J. L. Wong, S. Feedenthal, and C. L. Bagg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Suicide Anger Expression Inventory,” *Journal Psychopathology Behavior Assessment*, Vol.32, pp.595-608, 2010.
- [19] 김종술, *다면적 인성검사: MMPI의 임상적 해석*,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 [20] 이경선, 손정락, “자기 주장훈련이 대학생의 분노억제와 분노표출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34권, 제2호, pp.115-133, 2010.
- [21] 이경옥, “분노 폭발이 잦은 아동의 놀이치료 사례”, 놀이치료연구, 제10권, 제1호, pp.67-81, 2006.
- [22] 전검구, 김교현, “분노, 적대감 및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제2권, 제1호, pp.79-95, 1997.
- [23] R. Vannatta, “Risk Factors Related to Suicidal Behavior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25, No.2, pp.149-160, 1996.
- [24] 하정희, 안성희,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스트레스, 대처방식, 완벽주의, 우울, 충동성의 구조적 관계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제4호, pp.1149-1171, 2008.
- [25] 김현순, 김병석, “자살생각과 그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제2호, pp.201-219, 2008.
- [26] 최순옥, 김숙남,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영성”,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90-199, 2011.
- [27] U. Amautovsky and O. Grad, “Attitudes toward suicide in the adolescent population,”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Vol.31 pp.22-29, 2010.
- [28] E. Klonsky and A. Ma, “Rethinking impulsivity in suicid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40, No.6, pp.612-619, 2010.
- [29] J. Brenzo, J. Paris, R. Tremblay, F. Vitaro, M. Herbert, and G. Turecki, “Identifying correlates of suicide attempts in suicidal ideators: A population-based study,” *Psychological Medicine*, Vol.37, pp.1551-1562, 2007.
- [30] K. Skogman, M. Alsen, and A. Ojehagen, “Sex differences in risk factor for suicide after attempt suicide: A follow-up study1,052 suicide attempters,” *Suicidal Psychiatry Epidemiology*, Vol.39, pp.113-120, 2004.
- [31] 박동혁, *MLST를 통한 학습문제의 진단과 시간관리 지도법*, 서울: (주)가이던스, 2010.

[32] 이재상, *우울증과 자아정체감이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33] A. Beck, M. Kovacs, and A. Weissmen, "Hopelessness and suicidal behavior: An overview.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234, pp.561-571, 1975.

[34] R. M. Baron and D. M.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35] 조매제, 장성민, 함봉진, 정인원, 배안, 이영문, 안준호, 원승희, 손정우, 홍진표, 배재남, 이동우, 조성진, 박종익, 이준영, 김진영, 전홍진, 이해우, "한국 주요정신장애의 유별률 및 관련요인: 2006 전국정신질환역학조사", *신경정신의학*, 제48권, 제3호, pp.143-152, 2009.

[36] R. Kessler, P. Berglund, O. Demler, R. Jin, K. Merikangas, and E. Walters, "Lifetime prevalence and age-of-onset distributions of DSM-IV disorder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62, No.6, pp.593-602, 2005.

[37] 신민정, 정경미, 김은성, "한국 청소년들의 우울 및 불안에 대한 성차 연구: 발현시기와 연령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31권, 제1호, pp.93-114, 2012.

[38] 유우라, 노총래,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제16권, 제2호, pp.203-227, 2014.

[39] 김미영, 조혜희, 박지연, "정서 및 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의 분노조절 프로그램에 관한 고찰: 1990년에서 2010년까지의 국내외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제12권, 제4호, pp.291-312, 2010.

[40] 장미희, 이지아, 김애실, "지역사회 재가노인의 우울과 건강행위와의 관계에서 분노표현 방식의 매개효과에 대한 성별차이", *정신간호학회지*, 제23권, 제1호, pp.39-49, 2014.

저 자 소 개

정 구 철(Goo-Churl Jeong)

정회원



- 2002년 2월 : 연세대학교 심리학
과(문학사)
- 2010년 8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 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
교 상담심리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심리측정 · 평가, 학교심리, 중독심리